



삼성전자, 프린트 기업용 시장 공략 강화

삼성전자는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지역에서 3만5000대를 비롯해 총 4만대 규모의 대규모 B2B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최대 정부기관 중 하나인 연방연금기금(Federal Pension Fund)과 중고속 레이저 프린터 ML-3051ND와 소모품 각각 1만4000대, 2만8000대분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방정부와는 1만2000대 ▲프랑스 국립 고용안정청(ANPE)에도 5000대 규모의 기업용 레이저 프린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경찰청에도 각각 2000대와 1000대의 기업용 레이저 프린터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 기쁘스꼬이노(Guipozcoano) 은행에 레이저 복합기 3000대, 중국 평안보험그룹(中國平安保險)에 레이저 복합기 2000대, 말레이시아 내 세계 최대 이슬람계 채권 발행은행인 CIMB에 레이저 복합기 1000대를 공급하는 등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 영업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세계 프린터 시장에서 B2B와 개인용 시장(B2C)의 비중은 8대2 정도로 기업용 시장이 월등히 크다. 또 맞춤형 프린팅 솔루션의 연계 판매가 가능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브랜드 노출을 통한 인지도 제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포스데이타, 통합경영지원시스템 사업 수주

포스데이타(대표 유병창)는 최근 서울도시가스(SCG)의 경

삼성전자

30나노 64기가 낸드플래시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0나노 64기가비트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개발로 8년 연속 황의 법칙을 입증하게 됐다. '황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도가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의 메모리 신성장론이다.

삼성전자는 CTF 기술에 삼성의 독창적인 SaDPT(Self-aligned Double Patterning Technology) 공정 기술을 비롯, 최첨단 설계·소자·레이아웃 등의 기술을 추가로 적용해 얻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30나노 기술은 머리카락 두께 1/4000 정도의 초미세 기술이다.

64기가 용량은 세계 인구 65억 명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640억 개의 메모리 저장 장소가 손톱만한 크기에 집적돼 한치의 오차없이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MLC(멀티레벨셀) 기반 30나노 64기가 낸드플래시와 함께 SLC(싱글레벨셀) 기반 32기가 낸드플래시도 동시에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SLC 기반 낸드플래시가 모바일 PC시장 위주의 현 SSD(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시장을 캠코더를 포함한 디지털 컨슈머, 기업용 서버 등 대용량 스토리지 시장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혁신을 위한 통합경영지원시스템 사업을 수주하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도시가스가 비전달성을 위해 프로세스혁신(Pi)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한 선진 IT시스템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테이타는 오는 2009년 3월까지 18개월 동안 서울도시가스의 경영전략과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테이타는 컨설팅 단계에서는 프로세스혁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향 확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가스공급 전·후 부문, 안전부문, 관리부문 등 4개 업무 영역에 걸쳐 영업관리, 자재관리, 요금관리, 시설물관리, 고객센터,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KT

에너지 절약형 그린 IDC 개발

KT(대표 남중수)는 지난달 23일 인터넷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Green IDC'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유종록 KT 부사장은 "KT는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의 효율을 높여 자원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KT는 일부 데이터센터의 전력운영방식을 AC(교류전원)에서 DC(직류전원)로 전환해 약 20%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했다. 이를 KT의 전체 IDC에 적용할 경

우 연간 6만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직류전원 방식의 IDC운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구글, 일본 NTC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KT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기업의 시스템을 물이나 전기처럼 공공재산화해 ICS(Internet Computing Service)라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사용할 서버 용량을 미리 정해놓고 사용했지만 ICS는 서버, 스토리지 등 데이터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다.



KTF-우리은행

'우리V SHOW 카드' 출시

KTF(www.ktf.com 대표 조영주)와 우리은행(대표 박해춘)은 이동통신 브랜드 쇼(SHOW)와 우리V카드를 결합해 주요 SHOW멤버십 가맹점에서 양사의 중복할인이 가능하고 사용금액의 0.5%를 SHOW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제휴카드 '우리V SHOW카드'를 지난달 30일 출시했다.

이 카드는 ▲ 신용카드 사용액의 0.5%를 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고객은 적립된 SHOW포인트로 단말기구매, 통신료결제, 가입비 결제, SHOW마일리지 전환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쇼 멤버십 가맹점 중 패밀리 레스토랑 빅5(VIPS, 베니건스, 씨즐러, 오션스푸드, 차이나팩토리)에서 '우리V SHOW카드'로 결제 시 추가중복할인 10%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할인혜택을 극대화 했다.

이외에, ▲스타벅스 20%할인, 영화관(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동반자 포함 최대 6000원 할인, 놀이공원 30~50% 할인, GS칼텍스 주유할인 (60원~80원/리터)및 현금서비스/은행거래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의 기본적인 카드의 혜택을 쇼 멤버십 서비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다.



KT

메가브릿지 개발



방바닥과 거실 벽에 지저분하게 설치됐던 각종 통신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KT는 인터넷·전화·TV포털 등을 연결하는 가정 내 통신배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장비인 '메가브릿지'를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메가브릿지는 증폭 및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전화선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장비로, 이를 활용하면 각 가정의 통신배선을 복잡하지 않게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벽 내 케이블 포설 및 노출 배선 방식에 비해서도 50% 이상 개통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메가브릿지는 방과 거실에서 각각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방에서 인터넷을 하고 거실에서 메가TV를 시청하는 경우, 두 곳의 UTP 케이블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며 전화도 연결해 쓸 수 있다.

메가브릿지를 방과 거실의 전화용 4구 콘센트에 꽂은 다음, PC 혹은 메가TV 셋톱박스를 각각 메가브릿지에 연결하면 전화선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된다. 따라서 벽에 UTP 케이블을 포설하거나 바닥을 둘러 설치할 필요가 없다.

People&People

ICU 최완 교수 美 IEEE '젊은 연구자 상' 수상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이하 ICU)는 공학부 최완 교수(사진)가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가 주관하는 '젊은 연구자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IEEE 정보통신분과위원회는 3년마다 아태 지역의 교수 및 연구원 가운데 학회 및 학술 활동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3명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6개국 16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최완 ICU 교수를 비롯, 대만의 H.F. 루와 일본 H. 하라이 등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로 뽑힌 최완 교수는 그동안 무선통신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를 해왔는데, 특히 간섭환경에서의 다중 안테나 통신시스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국내외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한편, 최완 교수의 시상식은 오는 1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EEE 정보통신분과 아태지역 운영회의에서 열릴 예정이다.



LG전자 이웅범 부사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LG전자는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MC) 생산담당 이웅범 부사장이 지난달 9일 '제2회 전자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휴대폰 및 인쇄회로기판(PCB)사업에서 독자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부사장은 지난 1983년 LG전자에 입사한 이후 디지털 Micro Circuit사업부장, PCB 사업부장, 단말생산담당 등을 역임하면서 LG전자의 IT사업분야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킨 전문경영인이다. 지난 2002년 PCB사업을 맡은 이후 과감한 제품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2003년 흑자 사업부로 전환시켰다. 또 부단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단말기 및 특수 MLB(Multi Layer Board)용 최첨단 다층 PCB시장에서 자체 기술을 독자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는 등 생산설비와 원자재 국산화 노력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우콤

성공적 게임 CDN 서비스

나우콤(대표 문용식)이 MMORPG 대작 게임 '창천온라인'의 CDN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게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공개서비스를 시작한 '창천온라인'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서수길, 박관호 이하 위메이드)가 4년 만에 선보인 야심작으로, 서비스 한 달 만에 각종 순위사이트와 게임사이트에서 급상승을 거듭하며, 하반기 게임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나우콤은 사용자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트래픽이 폭주한 창천온라인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 고객사로부터 만족도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위메이드 네트워크팀 김영철 팀장은 "회사에서 큰 기대를 걸고 오랜 기간 준비한 대작게임 런칭이라 안정적인 다운로드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나우콤 CDN의 빠르고 안정적인 다운로드 속도, 불규칙한 트래픽 폭주에 대응한 적절한 운영능력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페어차일드 신입대표에

송창섭 수석부사장 승진 임명

전력용 반도체 전문회사인 페어차일드코리아는 신입 대표이사에 송창섭 수석부사장을 선임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송창섭 신입 대표이사는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 삼성전자 시스템 LSI 파워 반도체 공정 개발 부장, 페어차일드 코리아 신기술개발팀 상무 등을 거쳐 2003년부터 페어차일드 코리아 부천사업장 총괄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했다.

송창섭 신입 대표이사는 "페어차일드 코리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제조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더 가치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 신입사장에

조영빈 상무 승진 임명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신입 사장으로 조영빈 PLM 밸류 채널 담당 상무를 승진, 임명했다고 지난달 9일 발표했다.

신임 조 사장은 향후 PLM 밸류 채널 담당 업무와 함께 한국 지사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방침이다.

조 사장의 발탁은 '원조' 한국지사 멤버의 내부 승진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조 사장은 지난 97년 재무팀 매니저로 입사, 다쏘시스템코리아 설립 때부터 10여 년간 고락을 함께 해왔다.

사장 승진 직전까지 재무팀을 비롯해 영업, PLM 밸류 채널 담당 등 다방면에 걸쳐 역량을 발휘해왔다.

다쏘시스템은 특히 조 사장이 중견 중소기업 공략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채널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매출을 크게 상승시킨 점도 사장 발탁의 주요 사유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11월 아디다스폰 출시



삼성전자가 아디다스와 손잡고 개발 중으로 알려진 '아디다스폰'이 이달 중순 유럽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휴대폰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디다스폰(모델명 SGH-F110)을 오는 이달 중순 유럽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GSM 2.5G폰으로 네트워크 GPRS/EDGE를 지원한다.

삼성전자의 아디다스폰은 운동애호가를 겨냥한 제품으로 ▲심장박동수 체크 ▲조깅 거리 ▲운동 후 소비칼로리 등 스포츠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개발은 삼성전자가, 스포츠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아디다스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200만 화소 카메라 ▲FM 라디오 ▲MP3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한편 GSM방식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아디다스폰의 국내 출시는 힘들 전망이다.



나우콤-윈스테크넷 각 이사회서 합병 결의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윈스테크넷(대표 김대연)과 인터넷 서비스 전문기업 나우콤(대표 문용식)의 합병이 최종 확정됐다. 두 회사는 각각 지난달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상 주당 합병가액(윈스테크넷 5832원, 나우콤 6847원에 따라 윈스테크넷:나우콤=1:1.1740398이며, 나우콤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 424만 9905주를 발행하게 된다.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1월 28일 열릴 예정이며, 이를 거쳐 올해 12월 31일자로 합병이 완료된다.

윈스테크넷은 그동안 IDS(침입탐지시스템)로 출발해 IPS(침입방지시스템), TMS(위협관리시스템), 웹방화벽까지 차근차근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해온 대표적인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이다.

네트워크 보안 브랜드 '스나이퍼' 시리즈로 유명한 윈스테크넷은 8년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하는 등 매년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온 알짜기업으로, 올해 매출액 220억원과 영업이익 42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나우콤은 92년 설립된 인터넷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웹스토리지 사업을 기반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CDN,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등 사업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올해 매출액 300억원과 영업이익 50억을 목표하는 등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왔다.